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아무리 필연이라 해도 내 한생각으로 다 조절할 수 있다

생명은 태초에 어떻게…

질문 저는 이 생명이 태초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궁금한 학생입니다. 과학계에서도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 것 같고 종교계에서도 여러 다른 설이 있는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묻기를 이렇게 물었어요. "태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태초는 내가 나고부터 태초지, 왜 그렇게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태초는 내가 나고부터 태초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알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일체 생명은, 지금 '유생무생'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는 생명, 태로 나는 생명, 알로 나는 생명, 화해서 나는 생명, 질척질척하는 데서 나는 생명, 이 모두가 다 생명이다 이겁니다. 이 생명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이 에너지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겨난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아,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러죠.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면, 마음의 씨가 아니라면 태양도 형성시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마음의 씨가 아니라면 자기도 형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억겁 전년서부터 진화됐다고 합시다. 생각을 하는 것이 진화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즉 마음에서 생각을 한 것이 진화라면 창조해 낸 것은 설계를 바깥으로 내놓은 거죠. 그럼 그 설계는 한 군데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이 설계도, 이 설계도, 이 설계도, 이 모든 것이 다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감이 열 가지가 있다면, 물감은 이 열 가지를 한데 몰아서 물감이라고 하지만 색은 전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물감을 쓸 수도 있고, 저 물감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학생이 어머니를 만날 땐 자식이 된 마음으로 어머닐 대하죠? 그리고 형님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형님을 만나는 마음으로서 대하죠. 동생을 만났을 때는 내가 동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대하고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친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대해요. 그게 나툼이에요, 바로. 이 색은 여러 가지지마는 근본은 하나기 때문에 그 근본 하나가, 그럼 이 색 쓸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이 색 쓸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평등공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물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지금 학생이란 말이지요. 자기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게 학생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나투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퀴가 굴러가면 심봉은 움쩍도 안 하고 능력만 줄 뿐이지 그 심봉이 움죽거리는 건 아니에요. 바퀴가 구를 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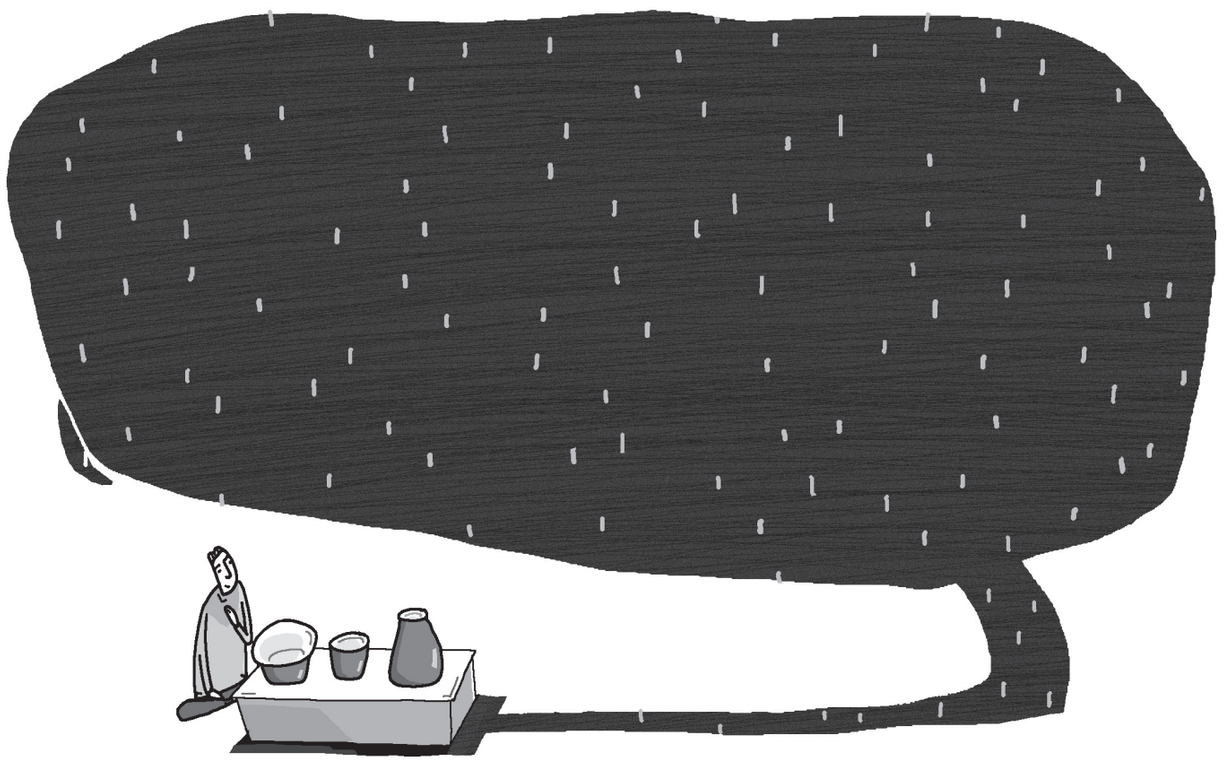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을 나투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고정적인 일 해 보셨어요? 고정적인 생각, 이날까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먹고 그런 예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난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먹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들은 그것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한데 뭉쳐서 그냥, 만약에 비교해서 에너지라면 에너지가 그냥 전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니 나니 하고 따지고, 이 종교가 틀리니 저 종교가 틀리니 하고 따지고 이러거든요.

비유하자면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사발이 있고 뭐, 대접이 있고 컵이 있고 차관이 있고 이런데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때에 따라선 다 쓰여지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발은 종지를 미워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이거예요. 또 사발은 저 큰 그릇을 웃보지도 말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 자기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잘난 사람만 못한 게 아니라, 그 잘난 사람보다 못난 내가 더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마도 아무리 못났어도, 코가 언청이라도 아마 잘생긴 남의 어머니보다 당신 어머니가 중요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자기 나무에서 자기 열매가 열려서 그 자기 열매가 무르익어서 그 나무에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것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거지,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야 해요, 각자.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 자기 잠재해 있는 원소 자체, 실상의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살림하면서도 스님처럼 공부를…

질문 큰스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활 속에서 살림하면서 스님처럼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는 이 사람들끼리도 그 마음을 모르고, 또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과거 그 사람이 무얼 했는지도 모르고, 현재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모두 연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담아 줄 수 있고 또 나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디? 모두가 다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죠. 죄는 없다, 고(苦)도 없고. 모든 게 없으나 아마 고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겠지, 이러죠. 모르는 게 죄고 모르는 게 고다. 내가 생각할 땐 하나도 죄 붙을 데도 없고, 인과응보라든가 그런 데 끄달릴 것도 하나도 없는데 딱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더 잘 배웠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나보다 못할 겁니다. 난 어려서부터 안 해 본 게 없어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 해 봤을 테니까. 내가 잘나고 또 모든 게 구조가 아주 잘났더라면 어디 꼬임에 빠져서라도 이걸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연구하고 그러느라고 딴 사람하고 말할 사이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지가 없었죠. 생각할 여지가 어딨습니까. 말 없이 말을 자꾸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 옆댕이에서 말할 새가 어디 있어요?

목신하고도 말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목신들이, 무정물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